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1월 29일 (제1073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하나님의 종

십 수 년 전, 어느 장로에게 나는 “편지를 떨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를 속였듯이 그가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쫓딱 망해서 비참해지고 말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성령, 곧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셨다. 왜냐? 주의 종은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이다.

주의 종에게는 생사여탈권이 있다(마10:14). 이는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복이 온다는 말씀이다. 곧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의 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들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지 않았는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2:13).

요즘 주의 종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장로들이 작당하여 목사를 내쫓는 교회가 많다. 그러나 이는가? 미리암은 모세의 행위에 대항하다가 저주를 받았고(민12), 고라와 그의 일당도 반기를 들다가 저주받은 사실을(민16). 제사장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은 사울의 말로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삼상15).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 이걸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마10:40)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다비다는 베드로를 예수님 섬기듯 했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충성하여 복을 누렸다. 나 역시 평신도 시절부터 목사가 된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하나님 섬기듯 해서 복을 받은 사람 중의 하나다.

주의 종은 성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말을 경이 여기지 말라.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감사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저녁예배를 통해 감사하는 삶이 곧 성공적인 삶이라고 가르치셨다.

“감사가 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라면 원망은 뭘까요? 말하나다나 더욱 가물게 하는 것이니 비참한 종말이겠조. 가물이 깊어지는데 살아남을 생명체가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만물이 소생하게 합니다.

나는 36년 목회 동안 단 한 번도 원망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환란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모함을 받더라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병들어 고통 받았을 때

은 처지가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양 치던 목동을 갑자기 불러 기름을 부으시더니 그 이후로 그에게 닥친 환란과 핍박과 죽음의 골짜기가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시편은 그의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어나가며 온몸에 악창이 나서 처참한 몰골로 바닥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로 전락했습니

다. 추방을 당해도 가야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아도 가야합니다. 자동차가 뒤엎어져도 가야합니다. 먹을 게 없어도 가야합니다. 산으로, 들로, 잠자리가 나뻑고 모기, 벼룩, 빈대가 물어뜯어도 가야합니다.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자가 준 것은 잠시잔간이요,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이 주신 직분은 내가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수행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감사(感謝)는

항암제요

방부제요

성장촉진제다



도 있었지만 병의 원인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 가장 최고로 감사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증거하는 사도적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 때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사가 순조롭고 형통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욥 같

다. 아내는 그런 그를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라며 떠나갔지요. 그러나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욥1:21).

그럼 너는 감사했느냐? 네! 나는 부모, 형제, 일가친척으로부터 내쫓겼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때 맞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조사를 받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종교재판에서 목사 제명을 받을 때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딤후1:12)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사도적 권능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 36시간이 걸려도 가야합니다. KGB에 끌려가도 가야합니다. 종교재판을 받아도 가야합니

인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를 도와 일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 또한 내 목회 36년 동안 나를 도와 함께 일한 모든 직원 및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충성되이 자신의 직분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주었기에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반석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날에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합니다. 절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 고꾸라져 죽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 받고 사람들에게 신뢰 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엡6:10~20)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한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핏 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변할 수 없는 강령(綱領)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귀는 막고 오직 콧대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길은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에 비유할 만큼 녹록치 않았습니 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침륜에 빠지지 않고 당당히 오늘에 이르렀습니 다.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흔들립니다. 나약해졌다고 할까요? 인정에 흔들려 나약해지고, 문화적인 지식에 휩싸이고, 사람 말에 동요되어 놀라고 두려워하는 등, 초심을 잃은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흔들리면 오합지졸이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한 지휘관이고, 그런 지휘관에게선 한시라도 빨리 지휘봉을 빼앗아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안 됩니다. 이대론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저는 하향평준화, 하향조정을 원치 않습니다. 상향평준화, 상향조정을 해야지요.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은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셔서 상향조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이 없다고요? 아니요, 능력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벌어서 없는 자에게 베풀면 되는 겁니다. 교육도 하향평준화하면 아이들의 실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잘하는 애들에게 더욱 기회를 줘서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게 해야죠. 일류기업으로 만들고,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되면 모든 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한 명의 인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고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머슴을 살아도 정승 집에 살아야지요. 그래야 뒷전으로라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하향조정해서 다 같이 무능한 목자요, 무능한 성도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좋아할 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엡6:12). 적을 알아야 백전 백승하는데, 적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인 마귀란 놈은 대체 어떤 놈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계20:2). 그놈은 거짓의 아버지(요8:44), 공중권세를 잡은 자요(엡2:2), 하와를 교묘히 꾀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 던진 놈이요(창3),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늘에서 쫓겨난 놈들입니다(계12:7~9).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란 놈은 타락하기 전에 완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한 인간을 쳤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놈과 싸워야 하는데 대충 싸웁니까? 최고의 무기와 정보로 눈을 부릅뜨고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고 하신 것(호4:9)은 마귀란 놈을 대적하는 데는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귀신을 투입시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연합전선을 펼치니까 우리 모두가 정보와 무기를 갖추고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상향조정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6:11).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정보도 입수하고, 최신 무기도 갖추라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산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다독보다 정독이 중요하고, 정독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또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곧 무기요, 연장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기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세상에 나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

사양의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함, 방언 말

함, 방언 들 통역 함, 이렇게 9가지 은사입니다(고전12:8~11).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 적을 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삼십육계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해봤어.” 이런 겁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놈들이 한 번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옵니까? 그렇게 신사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놈들은 나갔다가도 또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자기 집이라고 우기며 더 악한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옵니다(마12:43~45).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 쓰면요? 녹슬지요. 무기가 녹슬면 아무리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고, 스위치를 눌러도 발사되지 않습니다. 요즘 주의 종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신학만 공부하러 다니고, 문화적인 지식으로 머리만 큰 가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기사와 표적은 2천 년 전에 끝났다는 둥,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은 할 필요가 없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변질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멋진 목회자요, 교회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욱이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성도들을 거기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질되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찢을까?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23:13~15)라고 통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귀에 쟁쟁 울립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고전4:20). 그 능력은 오직 기도로만 나타납니다(막9:29). 총만 가지면 뭐합니까? 총알이 있어야지요. 지갑이 명품이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9).

우리 주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눅13:32)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고 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내는 것이고,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요, 복음을 전파하는 연장입니다. 이 무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귀신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산업(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 연결 가능한 사물을 일체화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혁신분야를 7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t)라고 미래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인터넷 통신망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유저(User)들이 사용하는 모든 일상을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집결시킨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의미합니다. 수집되는 자료의 규모가 극도로 방대하고, 다양하고 또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AI가 수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AI와 빅데이터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재편해왔는데, 중국에서 발원되어 전 세계로 급격하게 전파된 COVID19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부터 활발하게 활용되어온 비대면, 비접촉 운영 및 교류방식은 일부 다국적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한 통행과 이동의 제약은 아프리카 오지부터 선진국, 그리고 중국의 지방도시에서도 인터넷의 동시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대면 화상회의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관 산업의 융합은 광범위하고 깊게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 전 세계가 분업화되고 상호 연결이 된 현 시점에는 어느 특정국가도 관련 기술에 대하여 선두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실현한 국가도 없기 때문에 무주공산과 같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1, 2위의 선도적 제조기술을 갖고 있지만 원부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생산 이후 제3국으로 재수출해야 하는 것처럼, 4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를 조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에 대한 상용화에 성공한 영국은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었었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에도 기술 및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개발에 성공을 시킨 결과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세계의 패권을 쟁탈하거나 백년대계를 갖고 국정 및 사업계획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과거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서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임윤석 집사

:: 신앙논객 ::

한 사람의 영향력

대한민국 재계의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모 그룹 회장이 지난달 별세했다. 사람은 가도 말은 남는다. 그가 생전에 남긴 많은 말 중 이런 말이 있다. “200~300년 전에는 10만~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그의 말대로 그 기업은 한 명의 천재와 인재를 얻기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가게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는 물건을 만들던 삼류 전자제품 회사를 세계 1위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와 세미나를 통해 수없이 들었던 성공의 비결들을 알고 있다. 변화와 혁신, 주인의식, 인재 제일주의 등등... 이는 자기 분야의 정점을 찍은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들이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고, 그보다 더 짧은 3년 반 동안 그리스도(구원자)로서의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무려 2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아니, 이 땅에서 100년 안팎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할 내세의 운명까지 바꿔놓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들 역시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었다. 더러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서, 더러는 핍박과 순교를 무릅쓰면서, 더러는 양보와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총회장 목사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니까 지난 36년 동안 전 세계 70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가.

리더(Leader)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Followers)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자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하루도 각자가 서 있는 땅을 기쁨지게 하고 예수의 향기를 발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혁주 전도사
lessedmic@naver.com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온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끊임없는 반복이며, 한 가지 일에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1만 시간 동안 반복하고 지속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고 하는 말과 같다. 낙숫물이 한 군데에 꾸준히 떨어져내려 돌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매진하면 성공하게 된다.

기도하다가 기대했던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쉽게 기도를 놓을 때가 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수확하려고 하는 농부는 어리석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까지는 햇빛과 물이 공급되어야 하고 시간도 걸린다.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의 독이 찰랑찰랑 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들은 모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놀라운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반복해야 한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길 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성공에 가깝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선택하고 결단하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김성일 집사
cre8tor@naver.com



:: 낮은 울타리 ::

생각의 전환

뉴스를 틀면 아쉽게도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자극적인 정보와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래서 더 쉽게 ‘헤드라인’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뉴스에 많이 현혹되었었습니다. 취업에 관한 뉴스, 코로나에 관한 뉴스 등등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꼭 저의 현실이고 미래 같았습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내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내년에 취업은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며 다른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나 주위에서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하니 그 말속에 감혀버린 것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깬 것은 바로 목사님의 ‘멕시코 메리다 집회’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목사님은 세상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 일들을 직접 행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영상 시작 전 단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신념, 그리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것에 얽매이지 마라. 나는 다르고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제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믿음’과 ‘긍정의 힘’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썩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하셨는데, 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내 취업도 당연히 힘들 거야.’ 하면서 제 미래와 생각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은 너무 연약해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기도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뉴스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것들은 현재의 사회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취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요즘 무엇을 시작하면 다 안 되는 시기라고 하지만 ‘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그럼 난 안 되겠네’ 하며 좌절하거나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생각을 전환해봅시다.

장수정

:: 일본에서 온 편지 ::

손으로 쓴 일 억짜리 수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 4:4).
여전히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이맘때면 떠오르는 축복을 간절히 기도해드린 분이 계십니다.
점점 추워지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게 안에 걸린 남성 코트에 눈이 멈춘 자매는 가격을 확인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이 코트를 입고 출근하는 멋진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몇 번을 갔다가는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퇴근한 남편에게서 월급과 함께 빛바랜 낡은 코트를 받아든 순간 이 낡은 코트를 입고도 아무 말 없는 출근하는 남편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큰맘 먹고 다음 날 가서 그 코트를 사 왔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새 코트를 입고는 “사실 코트가 빛바래고 낡아서 새 코트 샀으면 했어.” 하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새 코트 사고 나면 생활은 어떻게?” 하며 걱정을 하자 “응, 괜찮아.” 하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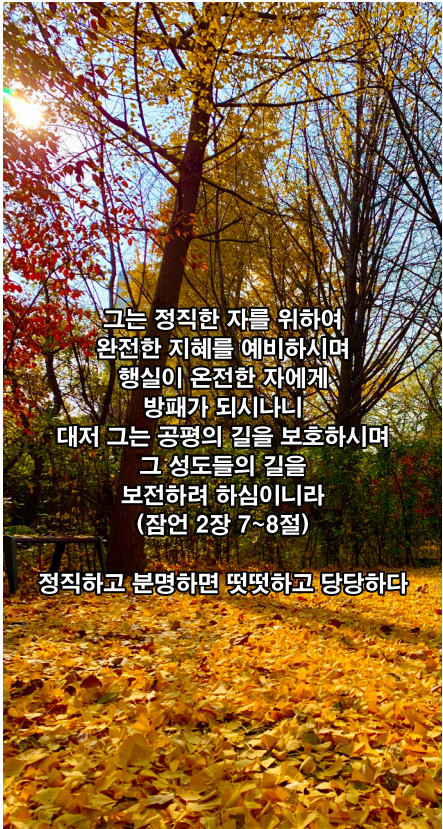
대답은 했지만 한 달간 생활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가서 지갑을 보니 100,000,000원이라고 쓴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를 세어보니 일억이었습니다. 누구 짓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시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데 눈물과 함께 감사와 행복이 넘쳤다고 합니다. 많이 벌지 못한다고 비교하고 무능력하다고 짜증도 부렸는데, 그 모든 것이 눈물에 다 씻겨내려 온데간데없어지고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근데 이왕에 쓸 거면 백억은 써야지, 일억이 뭐야? 남자가 쫄쫄하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된 지금도 너털너털해진 손으로 쓴 일 억짜리를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자랑하던 분이 떠오릅니다.
주의 종은 다시 한 번 반드시 주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리라 믿고 축복기도를 하드립니다.
반면에 지금 세계는 넘치는 쓰레기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맘에 안 들어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휴지통과 쓰레기 소각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감격의 순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픔과 슬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녹아들어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버리고 싶은 일들조차도 내 인생을 만드는 놀라운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귀를 기울이세요 ::

처음사랑=지금사랑

몇 년 전, 청년부 교구 모임 때 ‘예수님과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누구는 10년 전, 누구는 3~5년 전, 누구는 1년 전 예수님과 첫사랑 순간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이 예수님과 첫사랑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해본 적이 없어요.”
순간 정적이 돌더니 그 자리에 모인 모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이유는 나를 포함한 모두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첫사랑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내가 과거에 전도를 100명 했노라, 반주를 했노라, 조장을 했노라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의 마음과 같은지 아닌지 체크해보자. 예수님과 첫사랑이 과거가 되었다면 그것은 가짜이고, 예수님과 첫사랑이 ‘지금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그날의 충격을 안고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하루하루 샘솟고 있고, 이 간증을 회복이 필요한 형제자매에게 심방 갈 때마다 전하고 있다.
2주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님 자신이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사랑’이기에 피를 토하시며 36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처음 사랑이 ‘지금 사랑’ 될 수 있게 열심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자. 천국의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만 존재할 뿐이다.
송현혜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노이즈 캔슬링(noise cancelling)

얼마 전, 교회신문에 기고할 글을 쓰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르긴 몰라도 나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 무슨 상황인지 모른 채 ‘부모님이 대구교회 다녀오신 거 아니지?’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땐 그저 어리둥절하다 못해 걱정부터 앞섰다. 그리고는 감염이라는 이슈와 상관없는 열토당토않은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문 채 기사화되어 들려오는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둘째 치고 이것저것 물어오는 지인들의 물음에 일일이 대답하다 보니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에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지 뭐.’하며 지끈거리게 만드는 일을 내댚지고 에어팟을 꺼내 찬양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찬양소리로 가득해졌다.
‘노이즈 캔슬링’, 이 단어는 [Noise=소음], [Cancelling=상쇄하다, 무효로 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고가의 이어폰이나 핸드폰에 꼭 장착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 소음을 차단 또는 상쇄시켜 음악이나 음성이 더 잘 들리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말씀하셨다(약1:19). 이는 여러 소리들이 귀에 들려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난 잠시 읊이 고난 받을 때를 생각해볼려 한다. 읊은 온전하고 정직한 부자였지만 어느 날, 이 모든 부가 사라지고 자식들이 죽었다. 아내마저 읊을 저주하며 떠났다. 다행히 자기 몸은 멀쩡했다. 그러나 사단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를 나게 했고, 하나 남은 몸마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굽어야 하는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어디 이뿐이었나. 읊의 주변 사람들이 읊에게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며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했다. 어쩔 읊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보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당시 읊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무엇이였을까? 필자는 말이 아닌 귀를 닫는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침묵이 입을 닫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침묵은 입만 이 아닌 귀를 닫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다. 왜냐? 입을 닫을지라도 외부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침묵할 수 없고 고요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폭풍우와 같이 휘몰아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있을 때도 있다. 뿐만 아니라 거칠

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같이 비난의 소리 한가운데 움츠리고 있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노이즈 캔슬링’을 귀에 장착하고 침묵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입을 닫고, 귀를 닫는다고 하여 모든 소리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하는 소리는 차단되고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만 듣게 되는 기도. 그것이 침묵의 기도이다.
올 한해는 TV를 켜도, 신문 기사를 봐도 좋고 유쾌한 얘기보다는 낯선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혼란과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들뿐이다. 이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다. 캄캄한 밤, 모든 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작고 작은 시냇바늘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침묵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으로 표현하며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